

# [성주간] 성지주일 수난복음 나해

마르 14, 1 - 15, 47



마 르코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



파 스카 와 무 교 절 이 틀 전 이 었 다.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은



어 똥 게 하 면 속 임 수 를 써 서 예 수 님 을 붙 잡 아 죽 일 까 궁



리 하 고 있 었 다. 그 러 면 서 "백 성 이 소 동 을 일 으 킬 지 모 르



니 축 제 기 간 에 는 안 된 다." 하 고 말 하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베 타 니 아 에 있 는 나 병 환 자 시 몬 의 집 에 계 실 때 의 일 이



다. 마 침 식 탁 에 앉 아 계 시 는 데, 어 떤 여 자 가 값 비 싼 순



나 르 드 향 유 가 든 옥 합 을 가 지 고 와 서, 그 옥 합 을 깨 뜨 려



그 분 머 리 에 향 유 를 부 었 다. 몇 사 람 이 불 쾌 해 하 며 저 희

(다른사람)



끼 리 말 하 면 서 그 여 자 를 나 무 랐 다. ["왜 저 령 게 향 유 를



허 투 루 쓰 는 가? 저 향 유 를 삼 백 데 나 리 온 이 상 에 팔 아,



그 돈 을 가 난 한 이 들 에 게 나 누 어 줄 수 도 있 을 터 인 데."]

(해설자)

(그리스도)



예 수 님 께 서 이 르 셴 다. ["이 여 자 를 가 만 두 어 라. 왜 괴 롭



히 느 냐? 이 여 자 는 나 에 게 좋 은 일 을 하 였 다. 사 실 가 난



한 이 들 은 늘 너 희 곁 에 있 으 니, 너 희 가 원 하 기 만 하 면 언



제 든 지 그 들 에 게 잘 해 줄 수 있 다. 그 러 나 나 는 늘 너 희 곁



에 있 지 는 않 을 것 이 다. 이 여 자 는 자 기 가 할 수 있 는 일 을



하 였 다. 내 장 례 를 위 하 여 미 리 내 몸 에 향 유 를 바 른 것 이



다. 내 가 진 실 로 너 희 에 게 말 한 다. 온 세 상 어 디 든 지 복

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

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해설자) 열 두 제자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다른사람) ["스승님께서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해설자) 예수님께서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그리스도) ["도성 안으

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

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

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준 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줄 것이

(해설자)

다. 거기에 다차려라." 제자들이 떠나도 성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

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

(해설자)  
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다른사람)  
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해설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

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

(해설자)  
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

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

(그리스도)  
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해설자)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리스도)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



주를 마실 그 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빛은 것을 결코 다

(해설자)



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울



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해설자) (다른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해설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그리스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해설자) (다른사람)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

(해설자)  
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그리스도)  
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

(해설자)  
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

(해설자)



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이

(그리스도)



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

(해설자)



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



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시몬 아, 자 고 있 느 냐? 한 시 간 도 깨 어 있 을 수 없 더 란 말 이



냐? 너 희 는 유 혹 에 빠 지 지 않 도 록 깨 어 기 도 하 여 라.

(해설자)



마 음 은 간 절 하 나 몸 이 따 르 지 못 한 다."] 예 수 님 께 서 다 시



가 셔 서 같 은 말 씀 으 로 기 도 하 셧 다. 그 리 고 다 시 와 보 시



니 그 들 은 여 전 히 눈 이 무 겁 게 내 리 감 겨 자 고 있 었 다.



그 래 서 제 자 들 은 예 수 님 께 무 슌 말 씀 을 드 려 야 할 지 몰



랐 다. 예 수 님 께 서 는 세 번 째 오 셔 서 제 자 들 에 게 말 씀

(그리스도)



하 셧 다. ["아 직 도 자 고 있 느 냐? 아 직 도 쉬 고 있 느 냐?



이 제 되 었 다. 시 간 이 되 어 사 람 의 아 들 은 죄 인 들 의 손 에



넘 어 간 다. 일 어 나 가 자. 보 라, 나 를 팔 아 넘 길 자 가 가

(해설자)  
까 이 왔다."] 그 러 자 곧, 예 수 님 께 서 아 직 말 씀 하 고 계 실

때 에 열 두 제 자 가 운 데 하 나 인 유 다 가 다 가 왔 다. 그 와

함 께 수 석 사 제 들 과 율 법 학 자 들 과 원 로 들 이 보 낸 무 리 도

칼 과 몽 등 이 를 들 고 왔 다. 그 분 을 팔 아 념 길 자 는,

(다른사람)  
["내 가 입 맞 추 는 이 가 바 로 그 사 람 이 니 그 를 붙 잡 아 잘

(해설자)  
끌 고 가 시오."] 하 고 그 들 에 게 미 리 신 호 를 일 러 두 었 다.

(다른사람)  
그 가 와 서 는 곧 바 로 예 수 님 께 다 가 가 말 하 었 다. ["스 - - 승 님!"]

(해설자)  
그 러 고 나 서 입 을 맞 추 었 다. 그 러 자 그 들 이 예 수 님 께

손 을 대 어 그 분 을 붙 잡 았 다. 그 때 결 에 서 있 던 이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 칼 을 빼 어, 대 사 제 의 종 을 내 리 처 그 의 귀



를 잘라 버렸다. 예수님께서 서 나서 시어 그들에게 말씀

(그리스도)



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나왔단 말이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



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해설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



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



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



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앓아불을 찌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 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



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

(다른사람)



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



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해설자)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 러 자 대 사 제 가 한 가 운 데 로 나 서 서 예 수 님 께 물 었 다.

(다른사람)



["당 신 은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소? 이 자 들 이 당 신 에 게 불 리

(해설자)



한 증 언 을 하 는 데 어 찌 된 일 이오?"] 그 러 나 예 수 님 께 서 는



입 을 다 무 신 채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셧 다. 대 사 제 는

(다른사람)



다 시 물 었 다. ["당 신 이 찬 양 받 으 실 분 의 아 들 메 시 아 요?"]

(해설자)

(그리스도)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셧 다. ["그 령 다. '너 희 는 사 람 의 아 들



이 전 능 하 신 분 의 오 른 쪽 에 앞 아 있 는 것 과 하 늘 의 구 름

(해설자)



을 타 고 오 는 것 을 볼 것 이다."] 대 사 제 가 자 기 옷 을 찢 고 이 령

(다른사람)



게 말 하 였 다. ["이 제 우 리 에 게 무 슌 증 인 이 더 필 요 합 니 까?



여 러 분 도 하 느 님 을 모 독 하 는 말 을 듣 지 않 았 습 니 까?

(해설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

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다른사람) (해설자)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보아라."] 시종

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

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다른사람)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나 자

(해설자)  
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

(다른사람)  
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

(해설자)  
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다른사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패예요."]

(해설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서 있

(다른사람)



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래

(해설자)



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 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



들은 곧 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 회의와



의 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다른사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 이 유대인들

(해설자)

(그리스도)



의 임금 이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

(해설자)



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

(다른사람)



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희가 당신을 갖가지로

(해설자)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



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때에살인을저지른



반란군들과함께감옥에있었다. 그래서군중은올라가



자기들이해오던대로해달라고요청하기시작하였다.

(다른사람)



빌라도가그들에게물었다. ["유다인들의임금을풀어주

(해설자)



기를바라는것이오?"] 빌라도는수석사제들이예수님을



시기하여자기에게넘겼음을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군중을부추겨그분이아니라바라빠를



풀어달라고청하게하였다. 빌라도가다시군중에게

(다른사람)



물었다. ["그러면여러분이유다인들의임금이라고부르

(해설자)



는이사람은어떻게하기를바라는것이오?"] 그러자군

(회중) (해설자)  
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

(다른사람)  
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

(해설자) (회중)  
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해설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

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틀안

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

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

(다른사람) (해설자)  
하였다.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



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



색옷을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



수님을 끌고 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

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걸 옷을 나

누어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

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

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

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

(다른사람)

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해설자)

수석 사제들도 이런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다른사람)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 하였 으 면서 자신은



구원 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해설자)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열두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

(그리스도)

(해설자)



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 타니?"] 이는 번역

(그리스도)



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하여 저를 버리

(해설자)



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다른사람)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해설자)  
그 러 자 어 떤 사 람 이 달 려 가 서 해 면 을 신 포 도 주 에 적 신 다

음,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라 고 갖 다 대 며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해설자)  
["자, 엘 리 야 가 와 서 그 를 내 려 주 나 보 시 다."] 예 수 님 께

서 는 큰 소 리 를 지 르 시 고 숨 을 거 두 셧 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해설자)  
그 때 에 성 전 휘 장 이 위 에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

그 리 고 예 수 님 을 마 주 보 고 서 있 던 백 인 대 장 이 그 분 께 서 그

(다른사람)  
렇 게 숨 을 거 두 시 는 것 을 보 고 말 하 였 다. ["참 으 로 이 사

(해설자)  
람 은 하 느 님 의 아 드 님 이 셧 다."] 여 자 들 도 멀 리 서 지 켜 보

고 있 었 는 데, 그 들 가 운 데 에 는 마 리 아 막 달 레 나, 작 은 야

고 보 와 요 세 의 어 머 니 마 리 아, 그 리 고 살 로 메 가 있 었 다.

그 들 은 예 수 님 께 서 갈 킬 레 아 에 계 실 때 에 그 분 을 따 르 며

시 중 들 던 여 자 들 이 었 다. 그 밖 에 도 예 수 님 과 함 께 예 루

살 렘 에 올 라 온 다 른 여 자 들 도 많 이 있 었 다. 이 미 저 녁 때

가 되 어 있 었 다. 그 날 은 준 비 일 곧 안 식 일 전 날 이 었 으

므 로, 아 리 마 태 아 출 신 요 셉 이 빌 라 도 에 게 당 당 히 들 어 가,

예 수 님 의 시 신 을 내 달 라 고 청 하 였 다. 그 는 명 망 있 는 의

회 의 원 으 로 서 하 느 님 의 나 라 를 열 심 히 기 다 리 던 사 람

이 었 다. 빌 라 도 는 예 수 님 께 서 벌써 들 아 가 션 을 까 의

아 하 게 생 각 하 여, 백 인 대 장 을 불 러 예 수 님 께 서 들 아 가 신

지 오래 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

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

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

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 의 어머니 마리아 - 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 보고 있었 - 다.

(해설자) 주님의 말씀 입 - 니 다. (회중) 그리스도 - 님 찬 미 - 합 니 다.